

2023. 12. 13.(수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12월 13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: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

자치경찰총괄과	홍남기	2133-9804
---------	-----	-----------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3쪽

자치경찰홍보팀장	나정파	2133-9827
----------	-----	-----------

서울시 자치경찰위, 「대시민 인식조사」 결과 발표... 시민체감 치안정책 수립에 활용

- 자치경찰제 2년 맞아, 올해 운영성과 점검·치안정책 수립 위해 지난 10월 「대시민 인식조사」 실시
- 최우선 강화할 사업 ▲범죄예방시설 확대 ▲성폭력범죄 예방활동·피해자 보호지원 등 꼽아
- 자치경찰제에 대한 시민 인지도 79.7%로 전년 대비 5.8%p ↑...인지경로 TV, 인터넷 순
- 서울자치경찰위, “조사결과,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정책 만드는 데 활용”

□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(위원장 김학배)는 시행 2년을 맞이한 자치경찰제의 올해 운영성과를 점검하고, 시민이 필요로 하는 치안 정책 수립을 위해 시민 1천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‘서울 자치경찰 대시민 인식조사’ 결과를 13일(수) 발표했다.

-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지방 현안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21년 7월 1일 처음 도입됐다.
- 이번 여론조사는 자치경찰 인식, 자치경찰 담당업무별 강화 정책, 시민참여 수요 등을 묻는 내용으로 서울시가 (주)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0.16.~25. (10일간)에 18세 이상 서울시민 1,51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. 신뢰수준은 95%, 표본오차는 ±2.51%p 이다.

□ 조사 결과, 서울시민이 평소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범죄 및 사고 유형은 △폭행 및 상해(생활안전) △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(사회적 약자 보호)

△ 오토바이, 전동킥보드 등 이륜차 법규위반(교통안전)으로 나타났다.

- 생활안전 분야는 폭행 및 상해(50.1%), 교통안전(41.6%), 성폭력(26.7%) 순으로 불안함을 느끼고 있으며,
-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로는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(48.9%), 성범죄(38.8%), 아동학대(24.2%) 순으로 심각하다고 응답했다.
- 교통안전 위협요인으로는 오토바이·전동킥보드 등 이륜차 법규위반(55.1%), 음주·무면허 운전(43.2%), 과속·신호위반(31.8%) 순으로 나타났다.

□ 시민 안전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는 △범죄예방 시설 확대(생활안전) △성폭력범죄 예방활동 및 피해자 보호·지원(사회적 약자 보호) △음주운전·교통위반 지도단속 강화(교통안전)를 꼽았다.

□ 서울시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질문에는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자는 52.1%로 특히, 분야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효과성 조사결과에서 △어린이 통학로 개선 사업(교통안전) 82.5% △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(생활안전) 82.2% △지문 등 사전등록 현장방문 등록사업(사회적 약자 보호) 81.2%로 높은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.

□ 자치경찰 인지도는 79.7%로 지난해(73.9%) 대비 5.8%p가 상승하였고, 인지 경로는 △TV(53.7%) △인터넷 포털사이트(42.2%) 순으로 확인됐다.

□ 자치경찰 관련 시민참여 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는 전체의 5.8%에 불과하였으나, 앞으로 참여 의향을 물어본 결과 미경험자의 57.2%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다.

- 참여 경험 활동유형은 순찰활동(35%), 홈페이지 내 의견개선 활동(31.4%), 치안협력단체 활동(30.7%) 순으로 나타났다.
 - 참여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경우 향후 희망하는 활동유형은 자치경찰 관련 정책투표·설문조사 등 참여(60.1%), 각종 순찰활동(47.8%), 시민 정책제안(39.8%) 순이다.
-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△지역 치안 문제 관련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창구 확대(22.6%) △지역 치안 문제 발굴 및 맞춤형 시책 개발(22.1%)이 가장 높게 나와 시민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지역별 맞춤형 치안 정책 추진이 중요할 것으로 풀이된다.
-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인식 조사 결과를 시민이 치안 정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확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.
-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“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과 수요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”면서 “앞으로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, 시민의 정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혹시라도 시민이 부정적 또는 궁금해하는 부분은 없는지도 촘촘히 살펴보고 보완책을 마련해 시민의 사랑받는 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붙임: 서울 자치경찰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(별첨) 1부.